

한 권의 불서
성불의 세상!

불서 읽기 캠페인



시원스런 그림과
꽤지만 여운깊은 이야기로
묶어진 '마음공부'



명상만화 마음공부
김충현 글 고성원 그림
인복스퍼매김 11만 2000원

가장 어려운 공부 쉽게 하는 길

나는 내 마음의 노예인가! 선우 (善友)인가! 모든 해답은 내 안에 있다.

'등 빈 캔버스 같은 내 마음의 화가는 바로 나! 탐욕과 이기를 그리면 집적이 물들과 감사와 사랑과 배려를 그리면 기적처럼 행복이 찾아온다.'

<하업경>에 나오는 부처님 말씀이다. 그러나 <마음공부>의 시작과 끝 어디에서도 어려운 경전 말씀과 한문은 찾아볼 수 없다. 오히려 단순화 되고 유머러스하게 회화된 노스님과 법(法)을 구하는 행자의

선문답이 카툰(cartoon)형식으로 그려졌다. 마치 그림에 대한 부연 설명을 하듯 그 상황을 글로써 묘사하면서, 다시 한 번 삶의 지점으로 지닐 수 있도록 쉽게 풀어 놓는다.

'마음'과 '나'는 다스림의 수직 관계가 아닌 다독거림의 수평관계임을 알아야 한다. 나를 살아가게 하는 존재, 이것이 마음이다. 마음은 나를 반영함으로써 서로 되먹인다. 아연비구(雲巖比丘)가 <자경문(自警文)>에서 "주인공(主人公)아, 청아언(聽我言)하라" 외친 것도, '마음의 주인공인 나 스스로가 삶의 주체이며 내 마음의 울림을

바로 들어야' 함을 강조한 것이다.

그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어떠한가. 마음의 평화와 행복의 이상향을 언제나 먼 밖에서 찾아 온 것이 사실이다. 일상이란 고루하게 반복되고 정형화 되어 있는 것이라고 여겨왔다. 이러한 우리에게 저자는 선지식의 가르침을 빌어 '마음'을 열고 찾아가며 일깨우고 닦아 지니는 마음수행의 단계를 안내한다.

화가와 같은 우리의 마음을 어떤 색의 물감으로 그려 나가야 할지, 불교에 대한 상식이 부족한 일반인도 쉽게 이해할 수 있다. 삶의 주변에서 늘 함께 살아가는 모든 이들

이 남긴 이야기를 간략한 글과 그림으로 만날 수 있다. 하루에 한 가지 주제씩 읽어 보면서 그 날의 화두로 삼아도 좋다. 언제 어디서나 만날 수 있으면서도 마음을 밝히기에 부족한 없는 길을 품은 내용들로 가득찬, 곁에 두면 마음이 맑아지는 책 한 권이다.

저자는 춘천 불교방송 보도 제작팀에 근무하면서 <마음공부>를 집필했다. 불교 석학 제프리홀핀스의 <자비명상>을 번역 출간한지 1년 만에 내놓은 에세이다. 서울대 동양학과를 나온 고원성씨의 그림과 함께 어울려 잔잔한 미소를 선물한다. **가연숙 기자 ornflower@daum.net**

매일 '부처님 육성' 듣기

훌륭한 스승으로서의 부처님. 부처님은 모든 사람들에게 훌륭한 스승이다. 그런데 부처님을 만나기 어려운 역사적 존재라고 인식하거나 그 가르침은 매우 깊고 높아서 이해하기 어렵다는 선입견을 갖기 쉽다. 그것은 긴 세월동안 불교가 종교로 숭상되어 오면서 부처님을 신화적 존재라는 안개 속에 파묻은 까닭이다.

또 경전을 번역하고 해석하고 연구하는 가운데 때 시대마다 다른 관점이 제시되기도 했고 옛 언어로 전해지는 가르침에 대한 막연한 거리감이 불교를 어렵게 느끼도록 해 온 것도 사실이다.

그러나 부처님은 멀리 있지도 않고 그 가르침이 알아들을 수 없거나 이해하기 힘든 것도 결코 아니다. 문자의 함정을 벗어나지 못한 탓에 불교를 어렵다고 말할 뿐이다.

아함부 경전은 부처님의 육성이다. <장아함> <중아함> <잡아함> <중일아함>으로 구성된 아함부 경전의 가르침은 우리 이웃의 이야기처럼 친근하다. 부처님은 바로 우리의 생활 속에 자상하게 다가와 이렇저런 가르침으로 삶의 지혜를 심어 주는 분이라는 것을 일깨우는 경전이다.

불교신문 불교방송 불교TV 불교평론 등 불교계 매체에서 활동해 온 홍



남마다 읽는 부처님 말씀
홍사성 지음
우리출판사 펴냄 11만 2000원

사성씨는 지난 10년간 꾸준히 아함부 경전의 가르침들을 신문지상에 연재하고 책으로 묶는데 힘써 왔다. 바로 우리 곁에 있는 훌륭한 스승으로서의 부처님을 만나는 길을 안내하기 위해서다.

이미 <부처님은 이렇게 말씀했다> <마음으로 듣는 부처님 말씀> 등을 통해 아함부 경전에 알알이 박혀 있는 지혜의 보석들을 세공해 독자들에게 선물했다. 아함경 읽기의 마지막 단행본이 된 <남마다 읽는 부처님 말씀>은 <중일아함경>에서 뽑아 낸 100개의 보석 같은 가르침이다. **임연태 기자**

서평 송준영 시집 '습득'

언어 끊어진 곳의 소식

송준영 시인은 일찍이 조계종정 서운 선문의 틀에서 머리를 묻고 몸을 가라앉혀 들어 올려 천거하며 해아려서, 불조(佛祖)의 서래밀지를 사자상승(嗣子相承)하였으니, 곧 불조의 심인을 전수 받은 분이다. 화살 하나로 세 관문을 두드려 깨뜨렸으니, 선이라는 화살 하나로 교(敎)의 관문과 선의 관문 시의 관문을 관통한 작가이며 선장이다.

우리 주변에 단 한 번의 깨달음의 바람에 번뇌방사를 벗겨내(離風撥草) 불도 없이 흐린물, 험한 산의 정수를 삼키고 불조의 연구를 여과없이 받아들여 그 미묘한 뜻을 알지 못하면서 선시라는 이름으로 시를 발표하는 탐욕스럽게 술지게미나 먹는 자들이 많다. 이 당주조한(當酒糟漢)들은 소리와 모양을 따르고 좇아 현상에만 사로잡혀 독자들의 눈을 멀게 할 뿐만 아니라 목에 칼을 걸치고 족쇄를 두르고도(披枷帶鎖) 자기 자신이 칼과 족쇄에 얽매어 있는 줄 모른다. 비록 얼은바가 있다해도 '나는 깨달았다' '이것이 선시다' 하고 자만하며 자만 그것이 도리어 병이 되니, 깨달음이란 바로 물에 얼음이 생기는 것과 같은 것이다.

송준영의 시는 다 같은 연구를 사용해도 그 뜻은 범인의 그것과는 천지현격(天地懸隔) 이어서 그경계가 다르다. 그의 연구는 하늘의 구멍을 내어 뚫고(穿却鼻孔) 스스로 코를 꿰어 진원으로 들어가 자기의 성품을 요양(躄源)시하고 있다. 그것은 본성을 보았을 때 떠져 나온 그의 일성(一擧)에 연유한 그만 갖고 있는 독창적인 본체를 밝힌 다함이 없는 글귀(體明無盡句)이기 때문이다.

그래서 송준영의 시는 끝이 있어도 그 뜻은 끝이

없다. 번방의 골짜기나 붓도랑을 묻는데(塞壑填溝) 있어 곳곳에 미치지 않은 곳이 없다. 그러나 그 어느 한 곳에도 저 언어가 끊기는 아득한(言思適絕) 세계, 은밀한 진리의 세계(隱密全眞)를 비치게 할 뿐, 진작 미친 곳이 없다. 사실 송준영의 시를 읽다 보면 극적에 이르는 길이 끊어지고(極則無路處) 없다. 그것은 궁극의 이치이면서 그것이 궁극의 이치라는 자취마저 없는 현묘한 물종적(沒蹤跡)의 당처를 생각해 한다. 소나기 지나가며 산악이 밀려 쌓이는(堆山橫積) 찬 재와 같은 마른나무(寒灰枯木)의 울음소리가 들리는가 하면 시장 바다의 큰 파도와 넓고 아득한(洪波浩渺), 큰 파도 흰 물결을 일으키는 동해이어(東海鯨魚)의 숨소리도 들려온다.

오늘 송준영은 저지거리에 손을 드려우고 있다. 성스러운 견해도 머물지 않고 범속한 생각에서도 벗어나 책을 만들고 시를 쓰고 있다. 이것이 찬란한 붉은 바탕의 사람(爛紅底人)의 참사람의 진면목이 아닌가.

김인상주(劍刀上走) 칼날 위를 달리는 이어
대용현전(大用現前)에 부존(不存)칙(則)이로다.

설악(雪嶽) 조오현

금주의 베스트 불서 10

순위	도서명	저자	출판사
1	언젠가 이 세상에 없을 당신을 사랑합니다	월호	마음의 숲
2	나를 깨우는 108배	구본일	김영사
3	아름다운 인생은 얼굴에 남는다	원철	돌
4	당신이 주인공입니다	월호	불광출판사
5	아벨로키테수위라, 당신은 나의 연인	월호	운주사
6	질을 가져가게 잘하는 법	청건	뫼타의 마음
7	사할, 어느 것도 그냥 있는 것이 아니다	목경한	조계종출판사
8	돈오선	월암	클리어마인드
9	술 취한 꼬끼리 길들이기	아란 브라운	이레
10	오대산 노스님의 인과 이야기	과경	불광출판사

*불서출판 운주사 제공 (02)3672-7181

붓다, 이 세상에 나투신 이유?
고따마 붓다
[성열지음 | 도서출판 문화문고 | w 22,000원]

가장 편안한 신발 성불화 인기! 성불화 카필라 신발



▲성불화 넘어공용

카필라는 석가모니 부처님 탄생 국가기름

이다. 신발내부에는 신소재를 사용해 겨울에는 외부에서 들어오는 찬공기를 차단해 대단히 따뜻하고 여름에는 발냄새까지 흡수해 외부로 방출하는 기능까지 갖추고 있으며 신고, 벗기 편하게 원터치 신발끈으로 되어있다.

최고급 천연방수 '뉴빅' 사용

디자인면에서는 불자들의 평상복에도 잘 어울리고, 스님께서는 승복색상에 맞게 품격있게 제작하고, 최고급 천연방수가족 뉴빅을 사용해 세련되어 종교를 떠나 타종교인들도 신중하고 있다. 또한 '카필라'를 신고 만행할때 악귀와 잡귀를 미라꽃고 좋은 인연과 귀인을 만나게 만트라를 넣은것이 독특하다. 성불화'카필라'는 남여 공용으로 225mm부터 280mm까지 사이즈별로 제작되어 전화로 신청하면 택배로 받아 신을 수 있다. 가격 88,000원

• 문의: 080-775-7575
• 농협: 935-12-355423 박정미

불자님 평상복에도 세련! 스님 승복 색상에 맞춰 품격!

국내 기능성신발 메이커인 삼양에서 스님과 불자님들을 위한 신발 성불화 II "카필라"를 생산판매하고 있어 성불화 I에 이어 큰 호응을 얻고 있다. 성불화'카필라' 브랜드는 석가모니 부처님께서 왕세자였던 인도의 고대국가 이름이며 과학적인 설계로 신발의 무게를 획기적으로 가볍게 하고, 인체공학적 설계로 장시간 보행에도 피로감을 감소하게 제작된 기능성 신발

추운 겨울, 더운 여름을 거뜬히 이겨냅니다! 산양삼 직판 특별할인공급

지리산 산양삼 먹어보면 느낌이 확 옵니다.

산삼은 노루나 멧돼지 새 등이 산삼씨앗을 먹고 다른곳에 배설하여 싹이나 자라는 것이고 산양삼은 사람의 발길이 닿지 않는 깊은 산속에 산삼의 종자를 뿌려놓고 자연 상태에서 10~20년을 기다린후 채취한다. 인삼은 산이 잘 자랄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주어 2~3년만 지나도 손가락 굵기보다 큰 지리산 민족의 영산 지리산에 위치한것 함양군에 있는 지리산산양삼은 울창한 수림속에 잔별이 드는 산삼이 자라는 토양과 같은 조건에서 자라므로 10년이 지나도 손가락 굵기정도밖에 자라지 않으며 토양속 무기질을 영양으로 흡수하기 위해 잔뿌리가 잘 발달되어 있다. 그동안 삼이 좋은줄 알면서 높은 가격 때문에 선택 구입하지 못한 분들께 지리산 산삼영농조합에서 직



*삼령, 생산지, 원산지 표지된 산양삼 증명서가 동봉됩니다.

*시중 유사품에 주의하시고 겨울철이므로 통신으로 직판만 합니다.

■8년산 3뿌리 -390,000원- 200,000원
■8년산 6뿌리 -600,000원- 300,000원
■12년산 1뿌리 -290,000원- 150,000원

문의 1566-3378
지리산산삼영농조합
농협 (055) 963-3375
농협 1285-02-028081 임지영

오늘도 기분 좋은 안심참옷! 「천하무적」 옷 옷가네 토종참옷



- 몸이 무겁고 아침에 일어나기 힘들다구요?
- 한국 식품연구원 개발
- 서울대학교 안전성 검사

옷이 좋다는 것은 누구나 알고 있습니다. 그렇다고 아무거나 먹을 수는 없겠지요?

옷은 한번만 먹어도 몸이 따뜻해지고 속이 편안해지는 것을 느낄 수 있다. 그러나 옷이 좋은것은 알지만 옷탈 격정때문에 망설이는 분들을 위해 누구나 안심하고 먹을 수 있도록 과학적인 연구와 현대기술로 새롭게 개발된 참옷제품이 출시되면서 술을 자주 드시는 분이나 몸이 무거워 아침에 일어나기 힘든분들로 부터 큰 인기를 얻고 있어 화제가 되고 있다.

몸이 따뜻해지고 속이 편안...

전통식품 현대화를 위한 농림부 국책사업의 일환으로 한국 식품연구원(정부 출연기관인) 성기승 박사 외 8명이 3년간 연구 개발한 기술로서 서울대학교 수의학과에서 안전성 검사실험을 완료하였다.

몸이 무거워 아침에 일어나기 힘들거나 술, 담배를 자주하시는 분, 운동 또는 공부로 힘든 아이들, 조금만 움직여도 만사 귀찮아 하는 분은 일주일만 먹어도 자신이 직접 느낄 수 있다고 한다. 남녀 누구나 간편하게 드실 수 있는 본 제품은 일반형과 더욱 진하게 만든 고급형이 있다.

언론보도자료

- “인정받은 만큼 더욱 더 노력 하겠습니다.”
- MBC 교향은 지금 - 옷 안다는 참옷 최초 개발
- KBS 교향의 아침 - 참옷은 몸을 따뜻하게 한다
- SBS 환산교 정은아의 좋은아침 - 옷 탈 격정 있는 참옷 개발
- 2003.11 한국경제 - 참옷 식품을 아십니까?
- 2003.11 동아일보 - 옷 안다는 참옷
- 2003.10 스포츠투데이 - 참옷 부작용 걱정만 난 여인!
- 2003.11 스포츠조선 - 부작용 없는 옷, 안전성 원로
- ▶2006.6 KBS 무엇이든 물어보세요 - 걸스피드 익이 되는 옷 건강법 협찬
- ▶2006.8 20 KBS 성실일요일 - 계절의 보석 옷 협찬
- ▶2006.10.31 KBS 무한지대극 - 협찬

구입편 꼭 확인을...

농림부 국책사업의 일환으로 한국 식품연구원에서 3년간 연구 개발한 본 제품의 원료는 일반시중 제품보다 신뢰성이 뛰어나 많은 고객분들께 큰 호응을 얻고 있다.



•내용량 : 1박스(80㎘ x 60㎘) 2개입분 •1병(1.5ℓ)

상담문의 : 옷가네 참옷농원
무료전화 : 080-838-3366